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우키후네(浮舟)의 죽음의 문제

- 주변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

이혜원*

naya0209@korea.ac.kr

차례

1. 序言
2. 우키후네의 등장-나카노키미와의 관계를 통하여
3. 가오루와의 관계-가타시로·나데모노
4. 니오우미야와의 만남-생각의 엇갈림
5. 주변인물들과의 관계-入水에 이르기까지
6. 再生의 문제-結語를 대신하여

요지

『源氏物語』의 最後の女主人公である浮舟は男君たちとの三角關係の悩みで入水したが蘇生した人物として登場する。本稿では、その入水するまでの経緯を探ってみて、浮舟が出家直前に自分の半生を省みる時、言及したまわりの人物との関わりに注目しながら、浮舟の入水までの人物との關係の在り方について考察した。浮舟の腹ちがいのお姉さんである中の君、薫、匂宮、右近、乳母、母である中将の君との影響關係をみると、浮舟が入水するまでその原因が浮彫りされる。

まず、中の君にとって浮舟は薫との曖昧な關係を整える「禊」として存在するし、薫に対して浮舟の存在感とは「形代」や「なでもの」しかない。これは「言葉がその存在を支配する」ことで、結局は水に流される「なでもの」として浮舟が入水する運命を担わせることになる。一方、愛で結ばれている匂宮との關係は、愛というものの、浮舟の匂宮に対しての思いと匂宮の浮舟に対しての思いのずれがあって、浮舟が匂宮より心の共鳴を得られないことによって生じる孤独感も浮舟の入水の原因の一つとして作用する。その以外の人物たちも一番親しい關係であるはずの母をはじめ右近と乳母の場合も浮舟の心的悩みを理解してくれなかった人々である。

浮舟は自分の内面的悩みを疎通する突破口を求めたが得られず、入水の決行に至った。浮舟が死を選ぶまで意図しなかったものながら周縁人物どうしの共助があったし、その關係の中で内的葛藤が増幅する彼女の選択であったと言える。ただ、浮舟の問題は甦た再生の問題が絡み合っていることを見逃してはいけない。疎通不在の問題は、「手習」と「出家」という浮舟の蘇生以後の変化様相を通してどんな形で現れて克服するのも考慮すべきものだと思う。

키워드 : 미소기, 가타시로, 나데모노, 엇갈림, 심적공명

1. 序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마지막 여자주인공인 우키후네(浮舟)는 두 남성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을 견디다 못해 생을 포기하고자 강에 스스로 몸을 내던진다. 그러나 목숨은 끝내 끊어지지 않았고 생을 덧없이 여긴 그녀는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다음은 바로 그 출가하기 직전의 그녀의 자기 성찰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얼굴도 본 적 없고 멀리 떨어진 동국지방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믿음직스럽기도 한 분 옆에서 지내는가 싶더니 생각지도 못한 일로 소식이 끊기고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시려는 분과의 인연으로 내 슬픔을 위로받는가 싶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이 몸을 생각하면 미야를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저 그분과의 관계로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홍굴나무 심은) 작은 섬의 색을 비유하여 변치 않는 마음을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애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親と聞こえけん人の御容貌も見たてまつらず、遙かなる東國をかへるがへる年月をゆきて、たまさかにつねに寄りて、うれし頼もしと思ひきこえしはらからの御あたりりも思はずにて絶えず、さる方に思ひさだめたまへりし人につけて、やうやう身のうさをも慰めつべききはめに、あさましようもてそこなひたる身を思ひもてゆけば、宮を、すこしもあはれと思ひきこえん心ぞいとけしからぬ。ただ、この人の御ゆかりにさすらへぬるぞ、と思へば、小鳥の色を例に契りたまひしを、などてをかしと思ひきこえけん <手習319>¹⁾

위의 밑줄 친 ‘기쁘고 믿음직스럽기도 한 분’이란 나카노키미(中の君)를 가리키며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시려는 분’이란 가오루(薰)이고 ‘미야’란 니오우미야(匂宮)를 가리킨다. 여기서 이들과의 인연이 여의치 않았음과 그와 관련된 우키후네 스스로의 회한어린 자기성찰을 읽을 수 있다. 우키후네는 세력다툼에 밀리어 우지(宇治)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던 잊혀진 왕족(世に数まへられたまはぬ古宮) 하치노미야(八の宮)의 딸이다. 그녀는 하치노미야와 그를 보필하는 뇨보(女房)였던 주조노키미(中将の君)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하치노미야가 딸로서 인정하지 않자 어머

1) 『겐지모노가타리』 본문인용은 日本古典文学全集本 『源氏物語』(小学館)에 의함.

니 주조노키미는 동국(東国)지방에 있는 수령의 부인으로 동국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우키후네 또한 어머니를 따라 그곳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존재인 우키후네의 이야기는 「야도리기(宿木)」권에서 「가게로(蜻蛉)」권까지 두 남성 사이에서 삼각관계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결국 강에 투신한다는 전반부와 투신 후 출가의 길에 접어들기까지의 후반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세 사람 즉, 나카노키미, 가오루, 니오우미야를 중심으로 하여 우키후네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피고, 투신사건 이후에 변모된 우키후네의 모습과의 관계에서 모노가타리가 종국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우키후네의 등장-나카노키미와의 관계를 통하여

잊혀진 왕족의,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잊혀진 왕족에게서 잊혀진, 즉 이중(二重)으로 잊혀진 존재인 우키후네가 모노가타리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계기는 히치노미야의 딸인 나카노키미의 입을 통해서이다.

히토가타(人形)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입니다만, 정말 이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人形のついでに、いとあやしく、思ひ寄るまじき事をこそ思ひ出ではべれ<宿木437>

가오루가 죽은 오이기미(大君)를 잊지 못하여 우지(宇治) 근처에 오이기미를 닮은 ‘히토가타(人形)’²⁾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가오루의 ‘히토가타’라는 말로 촉발되어 나카노키미는 그녀의 이복동생인 우키후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친동생인 자신보다 오이기미를 더 닮았다며 우키후네를 오이기미의 히토가타격으로 년지시 말을 던져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카노키미가 우키후네의 이야기를 꺼낸

2) 히토가타(인형)는 한자 그대로 읽으면 ‘인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대 일본어에서는 ‘닌교(にんぎょう)’, ‘히토가타(ひとがた)’ 등으로 읽힌다. 『겐지모노가타리』 안에서 ‘人形’은 이중의 의미를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일본어 음을 그대로 살려 ‘히토가타’로 표현하기로 한다. ‘히토가타’의 상세한 의미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것은 단지 오이기미와 닮아서 즉흥적으로 언급한 우발적 발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명확히 표착되는 사실이다. 오이기미가 죽은 후에 가오루는, 나카노키미가 그녀의 친동생이고 생전의 그녀가 여동생 나카노키미를 자신과 맺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나카노키미에게 끊임없이 연모의 정을 밝혀 왔다. 오이기미와 자매라는 유카리³⁾로, 죽은 오이기미에 대한 사랑과 그 빈자리를 채워 줄 나카노키미에 대한 사랑이 가오루에게는 혼재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미 나카노키미는 가오루 스스로 가교역할을 하여 결합시킨 니오우미야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임신까지 한 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니오우미야의 부재를 틈 타 끈질기게 구애를 하는 가오루에 대해 그녀는 ‘괴롭다(わづらはしく宿木436)’고 여기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던 차에 가오루가 ‘히토가타’의 이야기를 꺼내자, 나카노키미는 그와 같은 곤경을 모면해 보고자 우키후네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그녀의 궁여지책은 효과를 발휘하여 결국 가오루는 우키후네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고, 우지에 있는 벤노아마(弁の尼)를 찾아가 우키후네와 자신을 연결해줄 것을 청하기에 이르게 된다. 때마침 우지에 와 있던 우키후네를 가오루가 엿보게 되고, 우키후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난 후의 감동을 그는 벤노아마에게 전한다. 그와 같은 감동을 ‘그 얼굴 뿐 아니라 목소리도 옛사랑을 닮았는지 확인하고와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오늘 찾아왔습니다。(かほ鳥の声もききしにかよふやとしげみを分けてけふぞ尋ぬる<宿木483>’는 노래 속에 담음으로써 이야기는 일 단락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오루와 우키후네의 이야기는 중단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야도리기(宿木)」권을 마치게 되는데⁴⁾ 다시 가오루가 우키후네와 재회하게 되는 것은 나카노키미를 통해서이다. 우키후네를 보고 오이기미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한 가오루이지만, 우키후네에 대한 처우를 고민하면서 주저하게 되고, 주조노기미도 우키후네와 가오루의 신분차로 망설임이 끊임없이 구혼해오는 쇼쇼(少将)와 우키후네를 결혼시키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러나 우키후네가 히타치노스케(常陸介)의 딸인 줄 잘못 알고 그 재산을 노리고 구혼을 한 쇼쇼는 우키후네가 히타치노가미의 친딸이 아니라는

3) 일본어로서 연고, 인연이라는 의미이다. 인물에게 있어서는 그 인물과 혈연관계가 있는 연고자나 용모와 느낌이 비슷한 사람을 지칭한다. 혈연관계와 용모의 유사성을 포괄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일본어 음을 그대로 살려 ‘유카리’로 표현하기로 한다.

4) 全集 p.483 두주참조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쇼쇼는 친딸이 아니라면 그 집안의 사위가 된 다한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 파혼을 선언하고 히타치노스케의 친딸과 우키후네와 결혼하려고 이미 잡아놓은 혼인날짜에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동국지방에 있기 곤란하게 된 우키후네를 주조노키미는 교토에 있는 이복 언니인 나카노키미에게 맡기게 된다.

우키후네에 대한 일은 그저 아가씨께 맡기고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この君はただまかせきこえさせて、知りはべらじ <東屋44>

다른 어느 자식보다도 귀하게 여기던 우키후네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주조노키미는 나카노키미에게 우키후네를 맡기게 된다. 우키후네의 후사를 책임지게 된 나카노키미가 우키후네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자신의 언니인 오이기미와 놀랄 만큼 닮아 있어 ‘그 히토가타를 원하시는 분에게 보이고 싶구나(かの人求めたまふ人に見せたまつらばや<東屋44>)’이다. 때마침 니오우미야의 외출을 틈타 찾아온 가오루에게 나카노키미는 자신에게 더해지는 가오루의 집심(執心)을 무마해보고자 다시 우키후네의 이야기를 꺼낸다.

원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할 방도도 없이 탄식하시니 그러한 마음을 없애줄 미소기(禊)를 해드리고 싶어지셨을까, 그 히토가타 이야기를 꺼내시어 “아주 몰래 이 근처에 와 있습니다.”라고 살짝 흘려 말하시니

恨みきこえたまふことも多かれば、いとわりなくうち嘆きて、かかる御心をやむる禊をせさせたまつらまほしく思ほすにやあらん、かの人形のたまひ出でて、「いと忍びてこのわたりになん」と、ほのめかしきこえたまふを、 <東屋46>

‘미소기(禊)’라는 것은 몸에 죄 또는 더러움이나 불경함이 있을 때, 혹은 중요한 신사(神事) 등을 하기 전에, 강 등에서 물로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 더러움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⁵⁾. 여기서 나카노키미가 우키후네의 이야기를 살짝 흘리는 것에 대해 가타리테는 나카노키미에 대한 집심을 씻어주기 위한 방책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토로 오기 전부터 나카노키미에게 있어 우키후네는 가오루와의 모호한 관계를 정리하기

5) 사전적 정의는 小学館 新編日本国語大辞典(2001)에 의함. 이하 동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나카노키미의 거처로 옮겨지게 되고 우키후네의 어머니가 나카노키미에게 우키후네의 후사를 부탁하고 동국지방으로 다시 떠났다는 것은 나카노키미에게 우키후네의 운명이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동국지방의 집에 더 이상 기거할 수 없는 우키후네를 나카노키미에게 부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나카노키미와 가오루의 관계에서 나카노키미가 우키후네를 ‘히토카타’로 소개한 첫 등장 장면을 떠올린다면 어머니가 우키후네를 맡기는 것은 우키후네와의 만남 이전부터 위치 지어져 있던 우키후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는 발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키후네의 존재감은 나카노키미가 가오루와 니오우미야의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운명을 우키후네가 대신 짊어지게 된 것이라는 후지무라 기요시(藤村潔)의 말을 상기시킨다.⁶⁾ 후지무라 기요시는 작자의 처음 구상이 나카노키미에게 가오루와 나카노키미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이었다고 했다. 처음 작자의 구상이 어땠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우키후네라는 존재가 나카노키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가오루와 자신이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나카노키미는 자신을 끊임없이 연모하는 가오루를 바라보며 니오우미야 사이에서 방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오이기미에게서 자신으로 이행한 유카리에 대한 집착은 다시 우키후네로 이어져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었고 나카노키미는 가타리테의 말대로 ‘미소기’를 하게 된 것이다. 우키후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쁘기도 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이라고 표현한 나카노키미는 역설적이게도 우키후네에게 두 남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운명을 지어준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가오루와의 관계-가타시로·나데모노

나카노키미에게 변치않는 연모의 정을 보이는 가오루에게 그 자리를 모면해보고자 우키후네 이야기를 꺼내는 나카노키미에게 가오루는 다음과 같은 우타를 부른다.

6) 『源氏物語の構造』(桜楓社,1966)

옛사랑의 가타시로(かたしろ)라면 곁에 두고 그리울 때마다 그리움을 덜어 줄 나데모노(なでもの)로 삼아야겠습니다.

見し人のかたしろならば身にそへて恋しき瀬々のなでものにせむ <東屋47>

이 노래를 듣고 나카노키미는 다음과 같이 답가를 읊었다.

미소기를 하는 강에 흘러버리는 나데모노라면 곁에 둔다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みそぎ河瀬々にいざさんなでものを身に添ふかげとたれか頼まん <東屋47>

여기서 주의는 끄는 것은 ‘히토가타(人形)’, ‘가타시로(かたしろ)’, ‘나데모노(なでもの)’라는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각각의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히토가타- ①사람의 모습
②미소기, 기도 때에 쓰이는 가타시로(かたしろ).
신체를 문질러서 몸의 재앙을 옮겨 물에 흘려보내는 것.
- ③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
- 가타시로- ①미소기 때, 신체를 문질러서 재앙을 옮기고 물에 흘려버리는 인형
- ②누군가를 대체하는 사람
- 나데모노- 더러움이나 불경함을 없애기 위해 미소기나 기도 등에 쓰이는 인형이나 의류.

이상과 같은 사전적 정의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은, 우키후네에게 부여된 역할이 누군가를 대신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지적된 바, 가오루가 말하는 가타시로는 그저 ‘누군가를 대체하는 사람’인 위의 ②번 의미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것이 나카노키미의 입을 거치면서 미소기 때 강에 흘러버리는 ‘나데모노’라는 의미로 발전되어, 우키후네의 역할은 단순히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떠나보냄으로써 버려지고 물에 흘러지게 되는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⁷⁾ 또한, 쓰이는 용도가 ‘미소기’ 때인 것에 주목

7) 高橋亨「存在感覚の思想」(『源氏物語の対位法』東京大学出版会, 1982), 原岡文子「浮舟」(『源氏物語講座2』勉誠社, 1991), 北川真理「形代の女君」(『源氏物語講座4』勉誠社, 1992) 외 다수

하면 앞에서, 나카노키미와의 관계에서 언급된 ‘미소기’를 환기시킨다. 가타리테의 말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증답가와 가타리테의 ‘미소기’운운하는 부분은 바로 연결되는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나카노키미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모노가타리 서술 안에서 우키후네의 존재감은 미소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카노키미와의 관계에서 미소기의 역할을 하는 우키후네는 가오루의 입을 통해 ‘히토가타’와 ‘가타시로’ 그리고 ‘나테모노’의 위상까지 동어반복적인 언어를 통하여 그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모노가타리 세계에서는 언어가 존재를 결정한다.’⁸⁾는 말처럼 가타리테를 비롯하여 우키후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인 나카노키미와 가오루의 입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가오루가 우키후네를 처음으로 엿본 뒤의 장면으로 돌아가보자.

우키후네를 보니 그저 오이기미가 생각나서 언제나처럼 눈물을 흘렸다. 아마기미에게 대답하는 목소리와 느낌은 나카노키미와 아주 닮았다고 여겨졌다.

これを見るにつけて、ただそれと思ひ出でらるるに、例の、涙落ちぬ。尼君の答へうちする声けはひ、宮の御方にもいとよく似たりと聞こゆ。〈宿木480〉

이 부분에서 기무라 마사노리(木村正中)가 ‘그저 우키후네가 오이기미와 닮았다고 말하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우키후네를 통해서 오이기미의 모습이 확인된다는 이야기로 자기의 존립을 확고한 형태로 확보하지 못한 그녀의 존재감과 관련된 다.’⁹⁾고 지적한 것처럼 우키후네의 존재감은 오이기미를 통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는 나카노키미와 닮았다는 가오루의 감회에서 오이기미에 대한 사랑이 오이기미에서 나카노키미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던 가오루에게 오이기미와 얼굴이 닮고 나카노키미와 목소리가 닮은 결합된 형태로 우키후네가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우키후네에게서 오이기미 뿐만 아니라 나카노키미와의 유사성까지 찾은 가오루에게 우키후네는 나카노키미와 가오루의 관계를 무마시켜주는 ‘미소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도 작용했을 것이다.

8) 高橋亨, 전계논문 p.198

9) 「寄る辺なき女—浮舟論」(『講座 源氏物語の世界』第九集, 有斐閣, 1984) p.39

4. 니오우미야와의 만남-생각의 엇갈림

우키후네가 가오루에게는 오이기미를 대신하는 대체물로서, 나카노키미에게는 가오루와의 곤란한 관계를 무마시켜주는 존재로서 위치지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니오우미야와의 관계는 사랑을 매개로 한 남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우키후네의 어머니인 주조노키미가 우키후네를 부탁하여 나카노키미 곁에 두게 되고, 이는 니오우미야가 우키후네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기에 이르는 계기고 되고 있다. 결국 동국지방에서 나카노키미 곁에까지 오게 된 우키후네는 가오루에게는 ‘히토가타’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니오우미야까지 만나게 되는 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키후네가 출가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에서 니오우미야에 대해서 ‘홍굴나무 심은 작은 섬의 색을 비유로 하여 변치 않는 마음을 약속하신 것’을 들어 니오우미야와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홍굴나무 심은 작은 섬의 색’이란, 니오우미야가 우키후네와 편안히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우지(宇治)강 건너편에 있는 도키가타(時方)의 숙부의 별장으로 옮겨가는 길에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변함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다.

“저기를 보십시오.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천년이나 지켜온 그 푸르름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고

세월이 흐른들 변할 손가. 홍굴나무 심은 작은 섬 앞에서 맹세하는 이 마음은
여자도 좀처럼 갈 일 없는 길이라 생각하여

홍굴나무 심은 작은 섬의 푸르름은 변할 리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떠있는 배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군요.

かれ見たまへ。いとはかなけれど、千年も経べき緑の深さをとのたまひて、

年経ともかはらむものかたちばなの小島のさきに契るころは

女も、めづらしからむ道のやうにおぼえて、

たちばなの小島の色はかはらじをこのうき船ぞゆくへ知られぬ。〈浮舟142〉

우키후네는 니오우미야가 ‘나는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을 모두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我は、年ごろ見る人をもみな思ひかはりぬべき心地なむする〈浮舟134〉)’

라고 말하는 것 등에서 ‘아주 다른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도록 차분하고 사려 깊은 분에게 익숙해져 있던 터라 조금만 만나지 못하면 죽어 버릴 것 같다고까지 걱정적이고 집착하시는 분을 눈앞에 보니 남녀의 정이 깊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浮舟 122>’라며 누군가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닌 보통의 남녀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니오우미야에게 끌리게 된다.

그러나 우키후네 권두 부분에서 니오우미야가 ‘그 여자와 살짝 만났던 그날의 일을 잊은 적이 없다(かのほのかなりし夕を思し忘るる世なし)’라며 우키후네의 일을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나카노키미가 마음속으로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자 중에서도 하릴 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곳까지 찾아가신 좋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어

さぶらふ人の中にも、はかなうものをものたまひ触れんと思したちぬるかぎりは、あるまじき里まで尋ねさせたまふ御さかよからぬ御本性なるに <浮舟98>

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니오우미야에게 우키후네를 찾아 교토에서 멀리 떨어진 우지(宇治)까지 찾아간 것은 이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키후네가 ‘남녀의 깊은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라며 감탄해마지 않은 일이 실상은 니오우미야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한 니오우미야의 본성은 우키후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지낸 49재가 지난 후에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두 사람(니오우미야·가오루)의 마음속은 언제나 슬픈데 니오우미야는 제어할 수 없이 사랑하던 그 찰나에 갑자기 그 관계가 끊기어 괴롭지만 본시 바람기 많은 마음으로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면 시험 삼아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었다.

二人の人の御心の中、旧りず悲しく、あやにくなりし御思ひのさかりにかき絶えては、いといみじけれど、あだなる御心は、慰むやなど試みたまふことも、やうやうありけり。<蜻蛉234>

조금이라도 못 보게 되면 당장이라고 죽을 것처럼 말하는 니오우미야에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우키후네였다. 그러나 니오우미야에

게 우키후네의 존재는 우키후네가 느끼는 만큼 특별한 존재로서 여겨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주서석서에서 밝힌 대로 니오우미야와 우키후네의 만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가오(夕顔)와 히카루겐지(光源氏)의 만남과 유사하다. 다른 여성을 만나러 왔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부터 남성쪽에서 이름을 밝힐 것을 청하고 결국은 정체도 모르고 사랑에 빠진다는 점,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 원래의 거처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밤을 보내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등의 비일상적이고 우연한 일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히카루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역시 끌리는 그 유가오가 이슬처럼 죽어버린 그 슬픔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다(思へどもなほあかざりし夕顔の露に後れし心地を年月経れど思し忘れず<末摘花339>)’라며 유가오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종국에는 그녀의 딸인 다마가즈라(玉鬘)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점에서는 다른 측면을 찾을 수도 있다. 우키후네가 죽은 후의 니오우미야의 행동과 본성이라 평가되는 평소의 행실을 고려한다면, 우키후네가 감탄할 만큼 니오우미야가 우키후네를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니오우미야의 실상을 알았더라면 우키후네가 가오루와 달리 걱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니오우미야에게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니오우미야와 가오루 중에서 가오루를 더 연모하는 마음이 깊었더라면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니오우미야와 우키후네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끝내 엇갈리고 마는 구도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키후네가 강에 투신하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생각의 엇갈림은 앞에서 언급한 ‘홍굴나무 심은 작은 섬의 색’의 우타를 주고받은 뒤의 전개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자신의 몸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며 니오우미야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우키후네에 대해 니오우미야는 그저 ‘때가 때인 만큼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아도 뭐든 흥취가 있게만 생각(をりから、人のさまに、をかしくのみ、何ごともしなす<浮舟143>)’하는데 머물고 있어, 우키후네의 마음을 위로해주거나 하는 일은 없다. 이는 니오우미야에게서 우키후네가 심적 공명을 얻어내지 못한 것임을 의미하며, 결국 우키후네로 하여금 심한 고립감을 느끼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주변인물들과의 관계-入水에 이르기까지

우지(宇治)강에 몸을 던져 생을 달리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우키후네의 뇌리에는 다음과 같이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잇달아 떠오른다. 죽을 것을 결심할 당시는 그리운 사람이 많았지만 소생한 지금은 그 그리움의 범위가 좁아져 어머니와 유모, 그리고 우콘(右近) 세 사람에 한하고 있다.

이제 끝이다라고 마지막 결심을 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고 계실까? 유모도 어떻게든 해서 무슨 일이든 이런 나를 보통의 사람처럼 (결혼하게) 해주고 싶다고 열심히었는데 얼마나 실망하고 있을까? (중략)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준 사람도 달리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털어놓고 상담하고 항상 친하게 지냈던 우콘 등의 일도 때때로 생각나는 것이었다.

今は限りと思ひはてしほどは、恋しき人多かりしかど、こと人々はさしも思ひ出でられず、ただ、親いかにもどひたまひけん、乳母、よろづに、いかで人々々になさむと思ひ焦られしを、いかにあへなき心地しけん、…同じ心なる人もなかりしままに、よろづ隔つることなく語らひ見馴れたりし右近などもりをりを思ひ出でらる。〈手習291〉

특히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는 어머니와 유모, 그리고 우콘 등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마음이 되어 준 사람은 없었다.’는 우키후네의 고독감이 여실히 배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뒤편 털어놓고 지냈다’는 우콘의 존재는 주목된다. 그렇다면 우콘이라는 인물은 우키후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모노가타리를 읽어 내려가다보면 위에서 언급한 세 인물(나카노키미, 가오루, 니오우미야) 이외에도 우키후네의 주변인물들은 우키후네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서 그 원인 제공자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키후네가 자신의 半生을 회상하고 자신의 주변인물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러한 절대적 고독감을 늘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우키후네가 우지(宇治)로 옮겨진 것을 안 니오우미야는 우키후네를 찾아가 가오루인 것처럼 행동하여 우키후네의 침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 때, 가오루로 착각하여 니오우미야를 우키후네의 처소로 안내한 것이 바로 우콘이다. 우콘은 우키후네의 유모

의 딸로서, 가오루로 착각하여 니오우미야를 안내한 잘못으로 니오우미야가 우키후네를 찾아오고 계속 만나는 일을 비밀로 하면서도 도와주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

(우키후네의 시종은) “무리도 아니지요. 가오루님의 역량을 뵈옵고 이 세상에 이런 분이 또 계실까 생각했지만 이 니오우미야님의 모습은 특별하신걸요.(중략)저라면 니오우미야의 이런 마음을 뵈옵고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예요.(중략)”라고 한다. 우콘은 “큰일 날 생각을 하시는군요. 가오루님의 모습보다 뛰어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중략) 이번의 일은 정말 보기 괴로운 일입니다.”

ことわりぞかし。殿の御容貌を、たぐひおはしまさじ、と見しかど、この御ありさまはいみじかりけり。……まろならば、かばかりの御思ひを見る見る、えかくてあらじ。……と言う。右近、うしろめたの御心のほどや。殿の御ありさまにまさりたまふ人は誰かあらむ。……なほこの御ことはいと見苦しきわざかな。〈浮舟151〉

위 인용문에서 시종(侍從)과 우콘이 ‘니오우미야의 이런 마음을 뵈옵고는’이라든가 ‘이번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니오우미야를 우지의 후키후네의 처소는 보는 눈이 많아 신경이 쓰인다면 우키후네를 우지강 건너편의 별장으로 데리고 간 일을 가리킨다. 그 일에 대해 시종은 니오우미야의 손을 들어주고 우콘은 가오루의 편이 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종과 우콘의 평은 서로 뒤바뀐 듯 보인다. 일단, 우콘은 실수로 니오우미야를 우키후네의 처소에 들게 했다고는 해도 계속 니오우미야와 우키후네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오루 편이 아닌 니오우미야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한편, 시종은 우키후네의 시녀로서 가오루가 우키후네를 나카노키미의 거처에서 우지로 옮길 때 같이 동행한 인물로 가오루에 대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이번에는 니오우미야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니오우미야와 가오루에게서 동시에 편지를 받고 고민하며 누워있는 우키후네 옆에서 일관되지 않게 마음이 동요되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변인물들의 태도가 우키후네가 두 남자 사이에서 방황하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가깝게 우키후네의 일거수일투족을 본 두 사람이 일관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 탓에 내적 갈등이 더욱 증폭된 우키후네가 고독감을 느낀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뭐든지 터놓고 지냈다고 하는 우콘이 결과적으로 우키후네를 궁지에 모는 행동과 생각을 보

인 경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콘은 니오우미야와 가오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키후네에게 자신의 언니의 이야기를 해준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두 남자가 자신의 언니에게 모두 마음을 주어, 결국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죽이는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졌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우키후네에게 들려준다. 그리고는 ‘죽는 것보다 더한 부끄러움이 되는 일도 귀한 신분의 사람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인 게지요.(死ぬるにまさる恥なることも、よき人の御身にはなかなかはべるなり。〈浮舟171〉)’라고 덧붙인다.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라는 말은, 우키후네의 마음을 벼랑 끝까지 몰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콘은 계속 어느 한 쪽이 되든지 빨리 선택하기를 재촉했고 그 옆에서 시종은 니오우미야를 무심하게 계속 추천하는 상황 속에서 우키후네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통로를 찾지 못한 채, 커져가는 심적 부담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니오우미야가 우키후네와 자신 몰래 만나고 있음을 눈치 챈 가오루는 우지의 우키후네의 집 경계를 강화한다. 가오루가 눈치챘다고 하는 두려움과 니오우미야에게 경도되는 마음을 잡지 못해 고뇌만 더해가는 우키후네는 ‘나는 어떻게든 죽고 싶다(まろは、いかで死なばや〈浮舟173〉)’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더해가며 누워만 지내는 우키후네에게 가장 가까워야 마땅할 유모조차도 ‘이상하게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모노노케 등이 방해를 놓을지도 몰라요(あやしくてのみ臥させたまへるは、物の怪などのさかたげきこえさせんとするにこそ〈浮舟174〉)’라며 무심한 탄식만 던진다. 뿐만 아니라, 니오우미야와의 관계 때문에 가오루가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비에 신경을 써 주시다니)참 기쁜 일입니다. 도둑이 많은데도 집을 지키는 사람도 처음처럼 하고 있지 않고 모두 자신을 대신해서라면서 미천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아서 밤에 순찰도 돌지 않았는데 말입니다。(いとうれしく仰せられたり。盗人多かんなるわたり、宿直人もはじめのやうにもあらず、みな身の代りぞ、と言ひつつ、あやしき下衆をのみ参らすれば、夜行をだにえせぬに〈浮舟176〉)’라면서 기뻐한다. 이는 니오우미야를 향한 내적갈망과 가오루의 경계리는 외재적 차단으로 인한 우키후네의 내적 고뇌를 유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나중에 ‘나와 같은 마음이 되어준 사람은 달리 없었기 때문에’라고 회고한 연유도 이러한 주변의 무심함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우키후네의 반생의 회고담에 담긴 고독의 그림자에서 마지막까지 그녀가 그리워하는 어머니 주조노키미는 어떠했는가?

“옳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면 저는 모든 것이 슬프고 괴롭다고 생각해도 두 번 다시 우키후네의 얼굴을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데도 (우키후네는) 가슴이 무너지는 생각이 든다. 역시 이 내 몸을 없는 것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よからぬ事を引き出でたまへらましかば、すべて、身には悲しくいみじと思ひきこゆとも、また見たてまつらざらましなど、言ひかはすことどもに、いとど心肝つぶれぬ。なほわが身を失ひてばや、ついに聞きにくきことは出で来なむ、と思ひつづくるに、<浮舟159>

니오우미야와 우키후네 사이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주조노키미는 우지에 찾아와서 벤노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나카노키미의 거처에서 니오우미야와 불미스런 일이 있을 뻔 했다는 말을 듣고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카노키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우키후네와는 부모자식의 연을 끊겠다고 벤노아마에게 하는 말이다. 이를 듣고서는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죽음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부분이다. 죽음을 선택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고민의 끝은 계속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있었음을 ‘역시’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머니 주조노키미의 말이 그러한 결심을 결과적으로 굳힌 것이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도 내가 사라진다면 누구나 아주 슬퍼하고 당분간은 그리워하겠지. 그렇지만 오래 살아서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는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번뇌가 끊길 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니 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분명하게 생각되지만

さてわが身行く方も知らずなりなば、誰も誰も、あへなくいみじ、としばしこそ思うたまはめ、ながらへて人わらへにうきこともあらむは、いつかそのもの思ひの絶えむとすると思ひかくるには、障りどころもあるまじく、さはやかによろづ思ひなされるれど、<浮舟159>

위의 밑줄 부분에서 우키후네는 자신이 죽은 뒤를 생각하면 잠시 그리워하고 슬퍼

한다 할지라도 역시 오래 살아서 괴로움을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결심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수많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타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키후네에게 있어 존재감이라는 것은 가오루와 나카노키미의 대화에서 나온 ‘가타시로’·‘나테모노’의 역할로 상실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존재감 자체가 부정되어 다시 상실을 통해 획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자신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살아 있을 경우에는 괴로움의 근원만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동안은 그리워하되 결국은 자신이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는 괴로운 일이 있는 것보다 낫다는 그녀의 자결지향의 마음은 후에 우콘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부끄러운 몸이 되는 것’이라는 말로 더욱 굳혀지게 되어, 급기야 우지(宇治)강에 몸을 던지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키후네의 ‘入水’라는 한 테마를 향해서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전개과정은, 작자의 주도면밀한 의도에 의한 구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키후네가) 아픈 듯이 말라있는 것을 (주조노키미는) 유모에게도 말해서, 적당한 기도 등을 하리게 하게나. 마쓰리와 불제(祓除)등도 이렇게 하도록, 이라며 말한다. 우키후네는 그것보다도 다라시강에 미소기를 하고 싶은 것을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말하며 소란을 피운다.

悩ましげにて瘦せたまへるを、乳母にも言ひて、さるべき御祈禱などせきたまへ、
祭祓などもすべきやうと言ふ。御手洗川に禊せまほしげなるを、かくも知らでよ
うづに言ひ騒ぐ <浮舟160>

우키후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결심한 후에 고민으로 말라있는 것도 모르고 주조노키미는 기도나 마쓰리 등을 하도록 유모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이 부분에서 밀줄 친 ‘다라시강에 미소기(御手洗川に禊)’라는 부분은 와카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라시강에 한 미소기를 신은 받아주지 않으셨구나.(恋せじと御手洗川にせし禊ぎ神はうけずぞなりにけらしも<古今・恋一・読み人知らず>)’에서 가져온 말이다. 어머니는 불제 등을 얘기하지만 자신은 그것보다 남자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게 해주는 미소기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이 보이는 부분이다. 여기에 또 다시 ‘미소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우키후네가 바라는 것으로 우

키후네는 나카노기미나 가오루를 위한 ‘미소기’가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미소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 주조노키미는 다른 것만 권하며 말하기 바쁘다. 이는 우키후네가 본인의 미소기는 불가능한 채 다른 사람의 대체로서만 미소기가 가능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와의 소통부재가 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6. 再生의 문제-結語를 대신하여

지금까지 우키후네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까지를 주변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우키후네가 죽음을 선택하기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변인물들간의 공조가 있었고 그 안에서 고독감을 이기지 못한 운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키후네의 문제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죽음을 선택했으므로 다시 살아난 再生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다시 살아나 결국 삶을 연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나아가야 하는 우키후네의 이야기에서 54권의 『겐지모노가타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재생하여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다시 누군가를 대신하는 인물로 여겨지는 이야기가 담긴 「테라나이(手習)」巻과, 가오루를 거부하면서 끝을 맺는 「유메노우키하시(夢浮橋)」巻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테나라이’라는 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일을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을 말한다.¹⁰⁾라고 한 것처럼, 테나라이라는 행위는 스스로 떠오르는 것을 그저 그대로 적는 것을 말하므로 거기에 적힌 글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우키후네가 소생한 뒤에 증답가라는 형식을 거부한 채 테나라이라는 형식으로 심중의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재생 이전의 소통되지 않은 상태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통되지 않은 상태를 심적 갈등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키후네가 그 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와 소통한다는, 그녀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해소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테나라이’의 의미, 이밖에도

10) 本居宣長 「玉の御櫛」(『本居宣長全集 第四卷』, 筑摩書房, 1989)

재생 이후에 다시 누군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취한 우키후네의 선택과 출가라는 결정, 그리고 가오루 거부로 이어지는 우키후네의 재생 후의 변화양상은 별고를 기한다.

참고문헌

- 北川真理(1992) 「形代の女君」 『源氏物語講座 4』 勉誠社
木村桓中(1984) 「寄る辺なき女—浮舟論」 『講座源氏物語の世界』 第九集, 有斐閣
高橋亨(1982) 「存在感覺の思想」 『源氏物語の対位法』 東京大学出版会
原岡文子(1991) 「浮舟」 『源氏物語講座2』 勉誠社
藤村潔(1966) 『源氏物語の構造』 桜楓社
本居宣長(1989) 「玉の御櫛」 『本居宣長全集 第四卷』 筑摩書房